

6세기의 한·일 관계

– 교류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

金 鉉 球

【國文抄錄】

- I. 머리말
- II. 6세기 한·일 관계의 전제
- III. 암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

IV. 암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

- 1. 양국 관계의 배경
- 2. 양국 관계의 실체

V. 맷음말

【國文抄錄】

6세기의 한·일 관계

金 鉉 球

6세기의 한·일 관계를 전하는 기본 사료로서는 한국 측의 《三國史記》와 일본 측의 《日本書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500년을 끝으로 왜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당시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싫든 좋든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일본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神功紀 49년(369)조 木羅斤資에 의한 가야 7국 평정과 同 62년(382)조 대가야 구원, 顯宗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繼體紀(507~531)에 보이는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欽明紀 23년(562)조의 신라에게 멸망된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의 출병 등은 《일본서기》에는 암마토 정권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는 기둥들인 것처럼 되

어 있지만, 반대로 백제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인용·해석해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남부경영론’이 나왔는가하면, 반대로 ‘삼한·삼국의 열본열도내 분국론’이 나온 것이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6세기 한반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07년에서 562년까지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조사해보면 백제와의 교류는 왕복 39회에 이르는 반면 신라·고구려와는 각각 왕복 2회씩에 지나지 않고, 임나와도 왕복 8회에 지나지 않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과는 달리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서기》가 백제계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백제계 사료를 근거로 했다고 해서 사료에 제시되어 있는 백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사료도 없는 임나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서기》를 가지고 논하는 한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당시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를 보면 백제는 일본에게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을 제공하면서 군원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에 야마토 정권은 백제에게 군원을 제공하면서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3국이 경쟁적으로 야마토 정권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대외관계에서 선진문물의 도입문제가 지배자층을 규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마토 정권은 남조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백제를 파트너로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서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게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야마토 정권은 백제에게 군원을 제공하는 용병관계가 성립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6세기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관계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처럼 임나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백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도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6세기 한·일 관계의 전제로 제삼국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는 神功紀 49년(369)조 木羅斤資에 의한 가야 7국 평정과 同 62(382)년조 대가야 구원, 顯宗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繼體紀(507~531)에 보이는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欽明紀 23(562)년조의 신라에게 멸망된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宿禰의 출병 등도 백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성이 크다. 적어도 《일본서기》의 체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처럼 되어버렸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일본서기, 야마토 정권, 백제

I. 머리말

6세기의 한·일 관계를 전하는 기본 사료로서는 한국 측의 『三國史記』와 일본 측의 『日本書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500년에 ‘倭人이 長峯鎮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¹⁾는 기사를 끝으로 왜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당시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싫든 좋든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일본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에 대해 사료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기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용·해석하고 취사선택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를 일방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인용·해석하여 소위 ‘한반도남부경영론’을 주장한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49)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인용·해석하여 ‘삼한·삼국의 일본열도내분국론’을 주장한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후의 연구는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6세기의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II. 6세기 한·일 관계의 전제

『일본서기』에 서술되어 있는 6세기의 한·일 관계는 그 전 단계인 4, 5세기의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하는 4, 5세기의 관계 기사와 무관하게 6세기의 한·일 관계를 논한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정권이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200여 년 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 중요 기둥이 되는 기사들이 神功紀 49년 (369)조의 木羅斤資에 의한 가야 7국 평정과²⁾ 同 62년(382)조의 대가야 구원³⁾ 顯宗

1) 倭人攻陷長峯鎮(『삼국사기』 신라본기 智知麻立干 22(500)년 3월조)

2)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 或曰, 兵衆

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⁴⁾ 繼體紀(507~531)에 보이는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⁵⁾ 그리고 欽明紀 23년(562)조의 신라에게 멸망된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의 출병⁶⁾ 등이다. 이들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반도 관계 기사 중에서도 기둥 역할을 하면서도 비교적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왜의 한반도남부지배를 보여주는 기둥이 되는 위의 기사들은 하나 같이 백제의 것이 야마토 정권의 것으로 개변된 것이라는 유력한 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⁸⁾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남부 지배를 보여주는 기둥이 되는 기사들이 하나 같이 백제 것일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따라서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위의 기사들이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인가 백제에 의한 것인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562년 紀男麻呂의 출병은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고,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은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 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 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領精兵, 與沙白 · 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祿 · 南加羅 · 噥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屢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 · 辟中 · 布彌支 · 半古四邑, 自然降服…(중략)…百濟王盟之曰,…(중략)…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神功紀 49(369)년조)

- 3)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遷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 · 阿首至 · 國沙利 · 伊羅麻酒 · 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既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國. 弟兄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神功紀 62(382)년조 분주)
- 4)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糧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 · 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顯宗紀 3(487)년 是歲條)
- 5) 가)-①繼體紀 23(529)년 3월 是月條 · ②繼體紀 23년 4월 是月條 · ③繼體紀 24(530)년 9월조 참조.
- 6) 遣大將軍紀男麻呂宿禰, 將兵出哆喇. 副將河邊臣瓊岳, 出居曾山. 而欲問新羅攻 任那之狀. 遂到任那, 以薦集部首登弭, 遣於百濟, 約束軍計. 登弭仍宿妻家. 落印書弓箭於路. 新羅具知軍計. 卒起大兵, 尋屬敗亡. 乞降歸附(下略)(欽明紀 23(562)년 7월 是月條)
- 7) 천관우, 1977 · 1978 <復元加耶史> 上 · 中 · 下 《文學과 知性》 28 · 29 · 31 ;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 8) 주 7) 참조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등은 382년 木羅斤資의 대가야 구원과 369년의 가야 7국 평정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세기 후반 木羅斤資의 가야 7국 평정과 대가야 구원을 전제로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이 성립될 수 있고,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등을 전제로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이 성립되고,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을 전제로 해서 562년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의 출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 관계의 기둥이 되는 위의 기사들이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인가 백제에 의한 것인가는 4세기 후반 木羅斤資의 가야 7국 평정과 대가야 구원이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인가 백제에 의한 것인가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369년 木羅斤資의 가야 7국 평정과 382년 대가야 구원의 주체가 왜인가 백제인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단서가 廣開土王陵碑文 중에 있는 것이다.

廣開土王陵碑文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문 永樂 10년(400)조와 同 14년(404)조의 왜가 고구려와 싸웠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同 10년조에는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來背急追至任那加羅’로 400년에 고구려군이 왜를 추적하여 任那加羅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고, 同 14년조에는 ‘十四年甲辰□倭不軌侵入帶方界’로 404년에 왜가 帶方界까지 올라가서 고구려와 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왜가 대방계 즉 오늘날의 황해도까지 올라가서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보아 당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가야나 중부지역의 한성을 수도로 삼고 있던 백제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왜가 가야와 백제 땅을 지나서 고구려와 싸웠다면 고구려와 싸운 왜는 가야·백제·왜의 3국 연합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고구려와 싸운 3국 연합의 주체가 어느 나라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고구려와 싸운 주체를 왜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3국 연합의 주체를 왜로 보는 경우에는 404년 이전에 왜가 가야와 백제를 그 영향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대방계까지 올라가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는 가야와 백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神功紀 49년(369)조에는 404년 이전인 369년에 왜가 가야와 백제는 물론 신라까지도 복속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⁹⁾ 그러나 왜의 본격적인 한반도 남부 경영의 단초를 연 것처럼 보이는 神功紀 49년조의 내용이 야마토 정권을 주체로 할 경우 성립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戰前에 津田左右吉이나 池內宏 등의 선학들도 지적한 바 있다.¹⁰⁾ 그리고 고구려와 싸운 주체를 왜로

9) 주 2) 참조

보는 경우에는 왜가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가야나 백제를 건너 뛰어 고구려와 직접 싸워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왜를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倭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가야가 주체였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당시 지역적 통합도 이루지 못한 가야가 백제를 사이에 두고 있던 고구려와 싸워야 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백제를 영향 하에 두고 왜까지 끌어들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왜나 가야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백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매년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므로¹¹⁾ 왜나 가야와는 달리 고구려와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404년 고구려와 싸운 3국 연합의 주체가 백제였다면 백제는 그 이전에 가야를 영향 하에 넣고 왜까지 끌어들였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백제가 가야를 그 영향 하에 넣고 왜도 끌어들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광개토대왕비문에는 396년 백제왕이 광개토대왕에게 패하여 그의 奴客이 될 것을 맹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 그리고 노객이 될 것을 맹서하는 치욕을 당한 다음해인 397년 백제는 왕자 脣支를 왜에 인질로 보내 405년까지 머물게 한다.¹³⁾ 그런데 전지가 왜에 머물고 있던 399년에는 왜와 화통하고,¹⁴⁾ 404년에는 대고구려전에 왜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404년 대고구려전에 왜를 끌어들인 것은 399년 왜와 화통한 결과이고, 399년 왜와 화통한 것은 397년 전지를 인질로 보낸 결과이며, 397년 전지를 인질로 보낸 것은 396년 고구려에게 노객이 될 것을 맹서하는 치욕을 당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396년 광개토대왕에게 노객이 될 것을 맹서한 치욕을 셧기 위해 전지를 인질로 보내서 왜를 404년 대고구려전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전지를 인질로 보낸 것이 대고구려전에 왜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전지는

10)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岩波書店); 池内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1) 광개토대왕비문 영락 6년(396) 丙申條에는 고구려에 패한 백제왕이 광개토왕의 奴客이 될 것을 맹서한 내용이 보인다. 주 12) 참조.

12) 六年丙申王躬率□軍討滅殘國軍□□□攻取壹八城…而殘主□逼獻□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광개토대왕비문 永樂 6년 丙申條)

13)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聃支爲質(『三國史記』 阿莘王 6년(397) 5월조)와 百濟記云, 阿花王立無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應神紀 8년 3월조 분주)

14)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跛城池以奴客爲民 歸請命太王(광개토대왕비문 永樂 9(399)년 己亥條)

무엇을 담보하는 인질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된다. 그런데 胸支가 무엇을 약속하는 담보였는가를 시사하는 내용이 神功紀 46년조에 보인다. 神功紀 46년(366)조에는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백제를 방문한 왜의 爾波移에게 백제 肖古王(=근초고왕)¹⁵⁾이 ‘五色의 絲綢 각 한 필, 角弓箭과 아울러 鐵鋌 40매를 주고 또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 각종의 진기한 물건을 보이며 “이 진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지금 使者에게 부탁하여 貢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爾派移는 받아 가지고 돌아와…’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⁶⁾ 근초고왕이 爾派移를 앞에 놓고 한 언행은 爾派移의 백제 방문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것이 사실이라면 366년 근초고왕이 보여주고 제공한 ‘五色의 絲綢이나 角弓箭, 그리고 鐵鋌 등과 진보야 말로 왜가 백제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 백제가 왜에 제공한 품목들이 대체로 이런 태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그렇다면 胸支를 인질로 보낸 것은 爾派移가 받아 가지고 돌아간 ‘五色의 絲綢이나 角弓箭, 그리고 鐵鋌 등과 진보’와 같은 선진문물들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담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典支를 397년 왜에 인질로 보내 405년까지 머물게 했다는 것은 백제가 404년의 對고구려전에 왜를 끌어들일 조건은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된다.¹⁸⁾

한편 404년 이전에 백제가 가야를 그 영향 하에 넣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神功紀 49년(369)조에 보인다.¹⁹⁾ 神功紀 49년조에는 가야 7국을 평정한 주체가 야마토 정권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주체를 야마토 정권으로 할 경우 神功紀 49년조의 내용이 모순투성이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津田左右吉이나 池內宏에 의해서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백제왕 근초고와 왕자 근귀수는 수도 한성에서 서남쪽으로 직행하고 백제의 장군인 木羅斤資 등은 卓淳에 모여 가야 7국을 평정하면서 남해안을 西進하여 忡彌多禮에서 만나는 작전의 구도나, 그 작전 구도의 일부로서 가야 7국 평정이 이루어진 점, 가야 7국을 평정한 주인공인 木羅斤資가 백제의 장군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야 7국을 평정하기 위해 집결한 곳이 왜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작전을 개시

15) 神功紀에 보이는 肖古王과 貴須가 실제는 근초고왕과 근구수임은 이미 학계에 입증된 사실이다.

16) 爰斯摩宿禰卽以僕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遣于百濟國，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仍以五色絲綢各一匹，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便復開寶藏，以示諸珍異曰，吾國多有是珍寶。欲貢貴國，不知道路。有志無從。然猶今付使者，尋貢獻耳。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志摩宿禰。便自卓淳還之也。(神功紀 46년 3월조)

17) 김현구, 1997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18) 김현구 외, 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 기사 연구』 2 (一志社) 참조

19) 주 2) 참조

할 수 있는 남해안이 아니라 백제가 작전을 개시해야 할 내륙의 卓淳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야 7국 평정의 주체는 왜가 아니라 백제일 가능성이 크다. 작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시사하는 ‘屠南蠻忱彌多禮’의 ‘南蠻이’라는 표현도 가야 7국 평정의 주체가 야마토 정권이 아니라 백제임을 시사하고 있다.²⁰⁾

神功紀 62년(382)조에는 백제장군 木羅斤資의 대가야 구원이 야마토 정권의 명에 의한 것처럼 되어 있다.²¹⁾ 그러나 382년의 대가야 구원은 369년의 가야 7국 평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야 7국을 평정한 것은 야마토 정권이 아니고 백제이며, 또한 대가야를 구원한 木羅斤資가 백제의 장군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가야를 구원한 것도 백제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대가야를 구원한 것이 야마토 정권이 아니라 백제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백제는 대가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즉시 구원에 나설 수 있지만, 야마토 정권은 바다를 건너와서 한반도 남해안의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야 만 비로소 대가야 구원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²²⁾

369년 가야 7국 평정이나 382년 대가야 구원의 주체가 백제이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繼體紀 3년(509) 2월조나 欽明紀 2년(541) 4월조 등에 의해서도 방증된다. 繼體紀 3년 2월조에는 ‘遣使於百濟. 括出在任那日本縣邑, 百濟百姓, 浮逃節貫, 三四世者, 幷遷百濟附貫也’로 509년에서 소급하여 3·4대 전, 즉 백제가 가야 7국을 평정한 근초고왕(366~374) · 근구수왕(376~383) 때부터 백제 백성이 임나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음이 시사되어 있다. 그리고 欽明紀 2년 4월조와 동 5년 11월조 등에는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 貴首王之世, 安羅 加羅 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賈可恒隆’로 백제가 가야 7국을 평정했다는 근초고왕 · 근구수왕 때부터 백제가 임나 諸國과 친호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²³⁾ 따라서 가야 7국을 평정하고 대가야를 구원했다는 4세기 후반부터 백제가 가야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일본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백제가 404년 이전인 369년에 가야를 그 영향 하에 넣고 382년에 다시 그 관계를 강화했다는 일련의 神功紀의 내용은 404년 이전에 백제가 왜와 和通하고 가야를 그 영향 하에 넣었음을 시사하는 광개토대왕릉비문 404년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광개토대왕릉비문 404년조에 보이는 고구려와 싸운 연합군의 주체가 백제이고 369년에

20) 神功紀 49년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현구, 『앞 책』(1993) 참조.

21) 주 3)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김현구 외, 『앞 책』(2003) 참조.

23) 기사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김현구, 『위 책』(1993) 참조.

가야 7국을 평정하고 382년에 대가야를 구원한 주체도 백제라면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이나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562년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宿禰의 출병 등 한·일 관계의 기둥이 되는 사건들의 주체도 백제일 가능성성이 크다.²⁴⁾ 그들은 모두 4세기 후반 木羅斤資의 가야 7국 평정과 대가야 구원, 그리고 광개토왕릉비문 404년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69년 木羅斤資의 가야 7국 평정과 382년 대가야 구원, 5세기 후반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562년 紀男麻呂宿禰의 임나 구원이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일 관계의 기둥이 되는 기사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던 과거의 6세기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들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III.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

《일본서기》에 보이는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임나가 멸망하는 562년 이후에는 임나의 회복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62년 이후의 한·일 관계는 그 이전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507년에 시작되는 繼體朝(507~531)은 일본열도 내에서나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그 이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즉 繼體天皇이 등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이때부터 현 天皇家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6세기의 한·일 관계의 핵심은 繼體天皇의 치세가 시작되는 507년에서 임나가 멸망하는 562년까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후의 한·일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라고 할 때 그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국가 간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인적 물적 교류로 표출되고 이는 6세기의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6세기의 한·일 관계도 《일본서기》에 보이는 繼體天皇의 치세가 시작되는 507년에서 임나가 멸망하는 562년까지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그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24) 기사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김현구, 『위 책』(1993) 참조.

《일본서기》에 보이는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야마토 정권과 任那와의 관계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任那에 3회에 걸쳐서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 가)-①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吞.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爾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憎在庭焉(繼體紀 23年 3月 是月條)
- 2) ②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 幷詔在任那近江毛野臣, 推問所奏, 和解相疑. 於是, 毛野臣, 次于熊川[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 召集新羅·百濟, 二國之王.(繼體紀 23年 4月 是月條)
- 3) ③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 遂於久斯牟羅, 起造舍宅, 滯留二歲, ……(中略)…於是, 天皇聞其行狀, 遣人徵入, 而不肯來. 顧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 奉詣於京而奏曰, 臣未敕歸旨, 還入京鄉, 勞往虛歸. 懈惡安措. 伏願, 陛下, 待成國命, 入朝謝罪.(繼體紀 24年 9월조)

반대로 任那是 야마토 정권에 5회에 걸쳐서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①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汝得至, 安羅辛已奚及貴巴委佐, 伴跋既殿奚及竹汝至等, 奉宣恩勅. 以己汝·滯沙, 賦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汝之地. 而終不賜.(繼體紀 7(513)년 11월과 同 是月條)
- ②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之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 奏天皇, 救助臣國. 大伴大連, 依乞奏聞.(繼體紀 23(529)년 4월조)
- ③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 遂於久斯牟羅, 起造舍宅, 滯留二歲[一本云, 三歲者, 連去來歲數也]. 懶聽政焉(繼體紀 24(530)년 9월조)
- ④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獻, 並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國郡,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以大藏掾, 爲秦伴造.(欽明紀 원년(540) 8월조)
- ⑤五月戊辰朔乙亥,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乃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詔曰, 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 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狀聞訖. 亦宜共任那, 幷心一力. 猶尚若茲, 必蒙上天擁護之福, 亦賴可畏天皇之靈也.(欽明紀

13(552)년 5월조

그리고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百濟에 15회에 걸쳐 사자를 파견하거나 군원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①春二月，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久羅麻致支彌，從日本來。未詳也]括出在任那
日本縣邑，百濟百姓，浮逃絕貫，三四世者，並遷百濟附貫也。](繼體紀 3(509)년 2월
조)
- ②夏四月辛酉朔丙寅，遣穗積臣押山，使於百濟。仍賜筑紫國馬卅匹。(繼體紀 6(512)년
4월조)
- ③春二月甲戌朔丁丑，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仍勅，副物部連[闕名.]，遣罷歸之[百
濟本記云，物部至至連]。是月，到于沙都鳴，傳聞伴跛人，懷恨銜毒，恃強縱虐。故
物部連，率舟師五百，直詣帶沙江。文貴將軍，自新羅去。(繼體紀 9(515)년 2월조)
- ④是月，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以津賜百濟王。於是，加羅王謂勅使云，此津，
從置官家以來，爲臣朝貢津涉。安得輒改賜隣國。違元所封限地。(繼體紀 23(529)년
3월 是月條)
- ⑤冬十月壬辰朔，天皇，以新羅寇於任那，詔大伴金村大連，遣其子磐與狹手彥，以助
任那。是時，磐留筑紫，執其國政，以備三韓。狹手彥往鎮任那，加救百濟。(宣化紀
2(537)년 10월조)
- ⑥冬十一月丁亥朔甲午，遣津守連，詔百濟曰，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宜附日
本府，并持詔書，宣曰，爾屢抗表，稱當建任那，十餘年矣。表奏如此，尙未成之。且
夫任那者，爲爾國之棟梁。如折棟梁，詎成屋宇。朕念在茲。爾須早建。汝若早建任
那，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自當止退。豈足云乎。(欽明紀 4(543)년 11월조)
- ⑦春三月，遣膳臣巴提便，使于百濟。(欽明紀 6(545)년 3월조)
- ⑧春正月甲辰朔丙午，百濟使人中部奈率己連等罷歸。仍賜以良馬七十四·船一十隻。
(欽明紀 7(546)년 춘정월조)
- ⑨六月辛酉朔壬戌，遣使詔于百濟曰，德率宣文，取歸以後，當復何如。消息何如。朕聞，
汝國爲舶賊所害。宜共任那，策勵同謀，如前防距。(欽明紀 9(548)년 6월조)
- ⑩冬十月，遣三百七十人於百濟，助築城於得爾辛。(欽明紀 9(548)년 10월조)
- ⑪春二月辛巳朔庚寅，遣使詔于百濟[百濟本記云，三月十二日辛酉，日本使人阿比多，
率三舟，來至都下。]曰，朕依施德久貴·固德馬進文等所上表意，一一教示，如祝掌
中。思欲具情。冀將盡抱。大市頭歸後，如常無異。今但欲審報辭。故遣使之。又復朕
聞，奈率馬武，是王之股肱臣也。納上傳下，甚協王心，而爲王佐。若欲國家無事，長
作官家，永奉天皇，宜以馬武爲大使，遣朝而已。重詔曰，朕聞，北敵強暴。故賜矢卅
具，庶防一處。(欽明紀 11(550)년 2월조)
- ⑫春三月，以麥種一千斛，賜百濟王。(欽明紀 12(551)년 3월조)
- ⑬六月，遣內臣[闕名.]，使於百濟。仍賜良馬二匹·同船二隻·弓五十張·箭五十具。

- 勅云, 所請軍者, 隨王所須. 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 又卜書·曆本·種種藥物, 可付送.(欽明紀 14(553)년 6월조)
- ⑭春正月…(前略)…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馬一百匹·船卅隻.(欽明紀 15(554)년 춘정월조) 夏五月丙戌朔戊子, 內臣率舟師, 詣于百濟.(欽明紀 15(554)년 5월조)
- ⑮春正月, 百濟王子惠請罷. 仍賜兵仗良馬甚多. 亦頻賞祿. 衆所欽歎. 於是, 遣阿倍臣·佐伯連·播磨直, 率筑紫國舟師, 衛送達國. 別遣筑紫火君.(欽明紀 17(556)년 춘정월조)

반면에 百濟는 야마토 정권에 24회에 걸쳐서 선진문물을 제공하거나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①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喇·下哆喇·婆陀·牟婁, 四縣.(繼體紀 6(512)년 12월조)
- ②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即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併跋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願天恩判還本屬.(繼體紀 7(513)년 6월조)
- ③夏五月, 百濟遣前部木荔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庭. 慰問慰勸. 賞祿優節(繼體紀 10(516)년 5월조)
- ④秋九月,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繼體紀 10년 9월조)
- ⑤春三月, 百濟王謂下哆喇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 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茲, 濕所齋, 全壞无色. 請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為請聞奏(繼體紀 23(529)년 3월조)
- ⑥五月, 百濟遣下部脩德嫡德孫·上部都德己州己婁等, 來貢常調. 別上表(安閑紀 원년 5월조)
- ⑦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獻. 並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國郡,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以大藏掾, 爲秦伴造.(欽明紀 원년(540) 8월조)
- ⑧秋七月, 百濟遣紀臣奈率彌麻沙·中部奈率已連, 來奏下韓·任那之政, 并上表之.(欽明紀 2(541)년 7월조)
- ⑨秋九月, 百濟聖明王遣前部奈率真牟貴文·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欽明紀 4(543)년 9월조)
- ⑩三月, 百濟遣奈率阿千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上表曰, 奈率彌麻沙·奈率已連等, 至臣蕃, 奉詔書曰, 爾等宜共在彼日本府, 同謀善計, 早建任那.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等, 至臣蕃奉勅書, 問建任那. 恭承來勅, 不敢停時, 爲

- 欲共謀. 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 遣召烏胡跛臣. 蓋是的臣也.]與任那. 俱對言, 新年既至. 頤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俱對言, 祭時既至. 頤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而由遣微者, 不得同計.(欽明紀 5(544)년 3월조)
- (11)夏五月, 百濟遣奈率其凌·奈率用奇多·施德次酒等上表(欽明紀 6(545)년 5월조)
- (12)夏六月壬申朔癸未, 百濟遣中部奈率掠葉禮等獻調(欽明紀 7(546)년 6월조)
- (13)夏四月, 百濟遣前部德率眞慕宣文·奈率奇麻等, 乞救軍. 仍貢下部東城子言, 代德率汶休麻那(欽明紀 8(547)년 4월조)
- (14)夏四月壬戌朔甲子,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德率宣文等, 奉勅至臣蕃曰, 所乞救兵, 應時遣送. 祇承恩詔, 嘉慶無限.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 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深勞念. 伏願, 可畏天皇[西蕃皆稱日本天皇, 為可畏天皇], 先為勘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 詔曰, 式聞呈奏, 爰觀所憂, 日本府與安羅, 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朕命即自遣之. 不命何容可得. 願王, 開襟綏帶, 怡然自安, 勿深疑懼. 宜共任那, 依前勅, 穩力俱防北敵, 各守所封. 朕當遣送若干人, 充實安羅逃亡空地.(欽明紀 9(548)년 4월조)
- (15)夏四月庚辰朔, 在百濟日本王人, 方欲還之[百濟本記云, 四月一日庚辰, 日本阿比多還也]. 百濟王聖明, 謂王人曰, 任那之事, 奉勅堅守. 延那斯·麻都之事, 問與不問, 唯從勅之. 因獻高麗奴六口, 別贈王人奴一口, 皆攻爾林, 所禽奴也.(欽明紀 11(550)년 4월조)
- (16)乙未, 百濟遣中部奈率皮久斤·下部施德灼干那等, 獻猶虜十口.(欽明紀 11(550)년 4월 乙未條)
- (17)五月戊辰朔乙亥,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荔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欽明紀 13(552)년 5월조)
- (18)冬十月, 百濟聖明王[更名聖王], 遣西部姬氏達率怒喇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欽明紀 13년 10월조)
- (19)春正月甲子朔乙亥, 百濟遣上部德率科野次酒·杆率禮塞敦等, 乞軍兵. 戊寅, 百濟使人中部杆率木荔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罷歸.(欽明紀 14(553)년 춘정월조)
- (20)八月辛卯朔丁酉, 百濟遣上部奈率科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 上表曰, 去年臣等同議, 遣內臣德率次酒·任那大夫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 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猶國通謀云, 百濟與任那, 頻詣日本. 意謂是乞軍兵, 伐我國歟. 事若實者, 國之敗亡, 可企踵而待. 索先日本軍兵, 未發之間, 伐取安羅, 絶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茲, 深懷危懼. 即遣疾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遣于秋節, 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晚者, 瞳膽無及矣. 所遣軍衆, 來到致臣國, 衣糧之費, 臣當充給. 來到任那, 亦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充, 令無乏少.(欽明紀 14년 8월조)
- (21)春正月丙申, 百濟遣中部木荔施德文次·前部施德曰佐分屋等於筑紫, 諮內臣·佐伯連等曰, 德率次酒·杆率塞敦等, 以去年閏月四日到來云, 臣等[臣等者謂內臣]

- 也.], 以來年正月到. 如此淳而未審. 來不也. 又軍數幾何. 願聞若干. 預治營壁. 別
諮, 方聞, 奉可畏天皇之詔, 來詣筑紫, 看送賜軍. 聞之歡喜, 無能比者. 此年之役,
甚危於前. 願遣賜軍, 使逮正月..(欽明紀 15(554)년 춘정월조)
- (22)二月, 百濟遣下部杆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 乞救兵. 仍貢德率東城子莫
古, 代前番奈率東城子言, 五經博士王柳貴, 代固德馬丁安, 僧曇慧等九人, 代僧道
深等七人. 別奉勅, 貢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王保孫 … 樂人施德三斤·
季德已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 皆依請代之.(欽明紀 15(554)년 2월조)
- (23)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汝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
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泊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 臨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
喜.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
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泊與斯
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
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并以奏聞. 今事方急. 單船遣奏. 但奉好錦二
匹·羈鈴一領·斧三百口. 及所獲城民. 男二女五.(欽明紀 15년 12월조)
- (24)春二月, 百濟王子餘昌. 遣王子惠[王子惠者, 威德王之弟也.]. 奏曰. 聖明王爲賊見
殺[十五年, 爲新羅所殺. 故今奏之.]. 天皇聞而傷恨. 遣遣使者. 遷津慰問. 於是. 許
勢臣問王子惠曰. 爲當欲留此間. 爲當欲向本鄉. 惠答曰. 依憑天皇之德. 冀報考王
之讐. 若垂哀憐. 多賜兵革. 雪垢復讐. 臣之願也. 臣之去留. 敢不唯命是從.(欽明紀
16(555)년 2월조)

한편 야마토 정권과 高句麗·新羅와의 관계를 보면 야마토 정권에서는 高句麗나
新羅에 전혀 사자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高句麗는 2회에 걸쳐서 야마토 정권
에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고, 新羅도 2회에 걸쳐서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
어 있다. 高句麗에서 야마토 정권에 2회에 걸쳐서 사자를 파견한 예는 아래와 같다.

- 마)-①秋九月,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戊寅, 百濟遣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
使安定等, 來朝結好(繼體紀 10 (512)년 9월 戊寅條)
- ②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獻. 並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
化者, 安置國郡,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以大藏掾, 爲秦伴造.(欽明
紀 원년(540) 8월조)

新羅에서 야마토 정권에 2회에 걸쳐 사자를 파견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叶)-①秋九月，新羅遣彌至已知奈末獻調賦 饗賜邁常。奈末喜歡而罷曰，調賦使者，國家之所貴重，而私議之所輕賤。行李者百姓之所懸命，而選用之所卑下。王政之弊，未必不由此也。請差良家子爲使者。不可以卑賤爲使。(欽明紀 21(560)년 9월조)
- ②是歲，復遣奴氏大舍，獻前調賦 於難波大郡，次序諸蕃，掌客額田部連·葛城直等，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大舍怒還，不入館舍，乘船歸至穴門。於是，修治穴門館。大舍問曰，爲誰客造。工匠河內馬飼首押勝欺給曰，遣問西方無禮使者之所停宿處也。大舍還國，告其所言。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以備日本。(欽明紀 22(561)년 是歲條)

이 기간에 중국과의 교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제시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교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교류 사례 비교

파견주체→대상	파견 사례	파견주체→대상	파견 사례
百濟→ 야마토 정권(24)	①繼體紀 6(512)년 12월조 ②繼體紀 7(513)년 6월조 ③繼體紀 10(516)년 5월 ④繼體紀 10년 9월조 ⑤繼體紀 23(529)년 3월조 ⑥安閑紀 원년 5월조 ⑦欽明紀 원년(540) 8월조 ⑧欽明紀 2(541)년 7월조 ⑨欽明紀 4(543)년 9월조 ⑩欽明紀 5(544)년 3월조 ⑪欽明紀 6(545)년 5월조 ⑫欽明紀 7(546)년 6월조 ⑬欽明紀 8(547)년 4월조 ⑭欽明紀 9(548)년 4월조 ⑮欽明紀 11(550)년 4월조 ⑯欽明紀 11년 4월 乙未條 ⑰欽明紀 13(552)년 5월 ⑱欽明紀 13년 10월조 ⑲欽明紀 14(553)년 춘정월조 ⑳欽明紀 14년 8월조 ㉑欽明紀 15(554)년 춘정월조 ㉒欽明紀 15(554)년 2월조 ㉓欽明紀 15년 12월조 ㉔欽明紀 16(555)년 2월조	야마토 정권→ 百濟(15)	①繼體紀 3(509)년 2월조 ②繼體紀 6(512)년 4월조 ③繼體紀 9(513)년 2월조 ④繼體紀 23(529)년 3월 是月條 ⑤宣化紀 2(537)년 10월조 ⑥欽明紀 4(543)년 11월조 ⑦欽明紀 6(545)년 3월조 ⑧欽明紀 7(546)년 춘정월조 ⑨欽明紀 9(548)년 6월조 ⑩欽明紀 9(548)년 10월조 ⑪欽明紀 11(550)년 2월 ⑫欽明紀 12(551)년 3월조 ⑬欽明紀 14(553)년 6월조 ⑭欽明紀 15(554)년 5월조 ⑮欽明紀 17(556)년 춘정월조

任那→야마토 정권(5)	①繼體紀 7(513)년 11월과 同 是月條 ②繼體紀 23(529)년 4월조 ③繼體紀 24(530)년 9월조 ④欽明紀 원년(540) 8월조 ⑤欽明紀 13(552)년 5월조	야마토 정권→任那(3)	①繼體紀 23(529)년 3월 是月條 ②繼體紀 23년 4월 是月條 ③繼體紀 24(530)년 9월조
高句麗→야마토 정권(2)	①繼體紀 10(512)년 9월조 ②欽明紀 원년(540) 8월조	야마토 정권→高句麗	
新羅→야마토 정권(2)	①欽明紀 21(560)년 9월조 ②欽明紀 22(561)년조	야마토 정권→新羅	

『일본서기』에 보이는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관계를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자 등의 교류 빈도가 그 관계의 옅고 짙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면,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과거의 통설적 견해들과는 달리 任那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百濟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高句麗나 新羅와는 각각 왕복 2회의 교류에 그치고 있고, 任那와도 왕복 8회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백제와는 왕복 39회에 이르고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²⁶⁾ 게다가 백제와의 관계는 대부분 긍정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임나와 사자 등의 교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임나가 야마토 정권의 미야케(屯倉: 직할령)이기 때문이거나 임나에는 직접 책임자를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나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임나가 왜의 직할지이거나 직접 책임자를 주둔시키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任那 문제에 대한 야마토 정권의 접근 방법에서도 확인된다.

任那 문제에 대해서 야마토 정권이 任那에 직접 의사를 전달한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마토 정권이 百濟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예는 4회나 확인된다.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5) 임나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末松保和 『앞 책』(24쪽)은 ‘대외관계 적어도 對韓 관계는 임나문제를 축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임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아직까지도 통설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6) 개략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않고 기록에 보이는 것만을 취급했다. 그런데 백제와의 관계는 사자가 왕래한 빈도도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 사)-①夏四月, 安羅次旱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 [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百濟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今用何策, 起建任那。盍各盡忠, 奉展聖懷。任那旱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所圖之旨, 更告新羅, 尚無所報。今宜俱遣使, 往奏天皇。(欽明紀 2(541)년 4월조)
- ②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 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 幷持詔書, 宣曰, 爾屢抗表, 稱當建任那, 十餘年矣。表奏如此, 尚未成之。且夫任那者, 爲爾國之棟梁, 如折棟梁, 誤成屋宇。朕念在茲, 爾須早建。汝若早建任那, 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 自當止退。豈足云乎。(欽明紀 4(543)년 11월조 · 同 是月條)
- ③二月, 百濟遣施德馬武·施德高分屋·施德斯那奴次酒等, 使于任那, 謂日本府與任那旱岐等曰, 我遣紀臣奈率彌麻沙·奈率己連·物部連奈率用奇多, 朝謁天皇, 彌麻沙等, 還自日本, 以詔書宣曰, 汝等, 宜共在彼日本府, 早建良圖, 副朕所望。爾其戒之, 勿被他誑。又津守連, 從日本來[百濟本記云, 津守連已麻奴跪, 而語訛不正, 未詳.], 宣詔勅, 而問任那之政, 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 議定任那之政, 奉奏天皇, 遣召三廻, 尚不來到。由是, 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 奉奏天皇矣。(欽明紀 5년 2월조)
- ④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於是, 百濟王聖明, 略以詔書示曰, 吾遣奈率彌麻佐·奈率己連·奈率用奇多等, 朝於日本, 詔曰, 早建任那, 又津守連奉勅, 問成任那, 故遣召之。

(欽明紀 5년 11월조)

任那 문제에 대해서 야마토 정권이 직접任那에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百濟를 통해 서만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任那가 야마토 정권의 미야케이거나 책임자를 주둔시키는 직할지이기 때문이 아니라,任那 문제에 대해서 야마토 정권은 단순히 백제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임나 문제에 대해서 야마토 정권은 단순히 백제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군원의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후 5회에 걸쳐서 원군 내지는 일부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

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鳴,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繼體紀 9(515)년 2월 · 同是月條)

- ②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彥, 以助任那. 是時, 磐留筑紫, 執其國政, 以備三韓. 狹手彥往鎮任那, 加救百濟(宣化紀 2(537)년 10월조)
- ③冬十月, 遣三百七十人於百濟, 助築城於得爾辛.(欽明紀 9(548)년 10월조)
- ④百濟遣中部木荔施德文次·前部施德曰佐分屋等於筑紫, 諮內臣·佐伯連等曰, 德率次酒·杆率塞敦等, 以去年閏月四日到來云, 臣等, 臣等者謂內臣也. 以來年正月到, 如此善而未審, 來不也, 又軍數幾何. 願聞若干, 預治營壁. 別諮, 方聞, 奉可畏天皇之詔, 來詣筑紫, 看送賜軍. 聞之歡喜, 無能比者. 此年之役, 甚危於前. 願遣賜軍, 使逮正月. 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馬一百匹·船卅隻.(欽明紀 15(554)년 춘정월조) 夏五月丙戌朔戊子, 內臣率舟師, 詣于百濟.(欽明紀 15(554)년 5월조)
- ⑤春正月, 百濟王子惠請罷, 仍賜兵仗良馬甚多, 亦頻賞祿, 衆所欽歎. 於是, 遣阿倍臣·佐伯連·播磨直, 率筑紫國舟師, 衛送達國. 別遣筑紫火君.(欽明紀 17(556)년 춘정월조)

그런데 야마토 정권이 5회에 걸쳐서 보낸 군 내지 인부는 모두 백제를 위해서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아)-② 宣化紀 2(537)년 10월조 ‘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彥, 以助任那. 是時, 磐留筑紫, 執其國政, 以備三韓. 狹手彥往鎮任那, 加救百濟’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나 지역에 파견한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백제를 위한 것이고 백제에 파견되고 있는 것이다.²⁷⁾ 그리고 아)-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임나의 일국인 반파와의 분쟁에서도 임나가 아니라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 문제에 대해서는 야마토 정권은 단지 백제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404년 이전에 백제가 가야를 영향력 하에 넣고 있었고, 왜를 끌어들였다는 ‘6세기 한·일 관계의 전제’에 대한 검토 결과와도 일치된다. 따라서 야마토 정권이 왜 백제를 지원했는가, 즉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 관계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7) 狹手彥이 궁극적으로 백제에 파견되었음은 敦達紀 12년 是歲條에 狹手彥과 함께 파견되었던 日羅가 궁극적으로는 백제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도 확인된다. 그리고 《三代實錄》貞觀 3년 8월조나 《肥前國風土記》松浦郡條에도 관계 기록이 보인다.

IV.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

1. 양국 관계의 배경

먼저 백제가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24회나 사자를 파견하여 야마토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북방의 강자인 고구려가 장수왕(413~491) 때 평양으로 천도하여(427) 본격적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남방의 백제와 신라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 압력은 신라 보다는 백제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혼인을 통해서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하고 있었다. 553년 양국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는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양국은 북방의 대고구려전에서는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남방에서는 임나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다만 고구려의 남하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임나 지역을 둘러싼 대립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었다. 그 경우 고구려의 주 타깃이 백제였으므로 백제로서는 對고구려전에서 신라와의 협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임나 지역을 둘러싼 신라와의 다툼에서 가능한 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과 동에서 압력을 받고 있던 백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이는 것처럼 4세기 아래 협력관계에 있던 야마토 정권밖에 없었다.

한편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야마토 정권도 15회에 걸쳐서 사자를 파견하면서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石母田正에 의하면²⁸⁾ 육체노동과 지적 노동의 분리가 사회적 분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배자층이 지적 노동을 독점함으로서 육체노동자인 일본인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대국가 형성기에 있던 당시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층으로서는 그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에서 선진문물을 독점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백제와의 관계에서 선진문물의 도입이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층을 규제하고 있었음은 야마토 정권이 분명한 형태로 백제에게 요구한 것이 대부분 학자나 선진문물이었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²⁹⁾

28) 石母田正, 1970 『日本の古代國家』(岩波書店) 19

당시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남북조시대로 그 중심이 남조에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 3국 중에서 지리적인 관계로 남조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남조와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조와 인접하고 있어서 남조와의 교류가 용이하지 않았고, 신라의 경우도 한반도의 동남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부의 백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국과 용이하게 교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백제를 매개로 해서 남조와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⁰⁾ 따라서 백제는 적극적으로 남조의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있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은 선진문물의 도입을 중요 과제로 하면서도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따라서 선진문물을 한반도 3국 중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국 남조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는 백제였다. 따라서 선진문물을 백제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백제가 梁에서 도입한 毛詩博士·涅槃等經義·工匠·畫師 등이 막 바로 야마토 정권에 전해지던 당시의 시스템으로도 입증된다.³¹⁾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3국 중에서 백제를 파트너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2. 양국 관계의 실체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에서는 전후 24회에 걸쳐서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야마토 정권에 대한 백제의 요구가 확실히 적시되어 있는 경우는 14회다.³²⁾ 그 중에서 임나의 일부에 대한 할양 요청이 3회이고,³³⁾ 임나 문제에 대한 상답이 2회이며,³⁴⁾ 나머지 9회는 원군이나 군수물자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⁵⁾ 따라서 임나 문제를 제외하면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게 요청한 것은 모

29) 뒤에서 자세히 논함.

30) 예를 든다면 《梁書》新羅傳에는 ‘普通二年(521)…(중략)…始使使隨百濟, 奉獻方物’로 신라가 백제의 중개로 梁과 통교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31) 《삼국사기》백제본기 聖王十九年(541)조에는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 并工匠·畫師等, 從之’로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제공하던 박사 등의 전문지식인과 불경 등의 선진문물이 그 직전에 중국 남조에서 도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2)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라)-1·2·5·8·10·13·14·17·19·20·21·22·23·24.

33)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라)-1·2·5

34)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라)-8·10

35)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라)-13·14·17·19·20·21·22·23·24

두 원군이나 군수물자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백제가 암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추구한 것이 군원이었으며, 군원을 획득하는 것이 당시 암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의 지배자충을 규제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백제의 군원 요청에 대해서 암마토 정권은 10회에 걸쳐서 원군이나 말·배·활·화살·군량 등의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³⁶⁾ 이에 대해서 백제는 24회의 사자를 파견하면서 ‘調’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하면 전후 10회에 걸쳐 오경박사를 중심으로 학자나 전문지식인, 그리고 승·불경·幡蓋 등의 불교관계의 물건과 珍物 등을 보내고 있다.³⁷⁾ 그런데 백제가 보낸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이 암마토 정권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면 암마토 정권이 백제의 군원 요청에 응해서 10회나 군원을 제공한 것은 10회에 걸쳐 백제로부터 오경박사를 중심으로 한 학자나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암마토 정권이 전후 15회에 걸쳐서 백제에 사자를 파견하면서 명확한 형태로 요구한 것이 박사라고 불리던 전문지식인과 서적이나 약물 등으로 백제가 보낸 오경박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 등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³⁸⁾ 백제와의 관계에서 암마토 정권이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선진문물의 도입으로 선진문물의 도입이 당시 백제와의 관계에서 암마토 정권의 지배자충을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서 암마토 정권은 백제에게 군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보낸 군병을 넓은 의미에서 용병이라고 할 수 있다면,³⁹⁾ 반파와의 분쟁 시에 제공한 物部至至連의 500船師, 신라의 금관가야 통합에 즈음해서 狹手彥이 이끌고 온 일군, 대고구려전이 끝난 직후에 파견된 축성인부 370인, 신라와의 관산성 싸움 때에 파견된 1000명, 그리고 백제 왕자 혜의 귀국 시에 보낸 호위병 등은 넓은 의미에서 백제에게 제공한 용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시 암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용병관계였다고 정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암마토 정권이 백제에게 제공한 10회의 군원 중에서 5회가 원군이나 그에 준하는 파견이지만⁴⁰⁾ 그 중에서 그 인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3회이다.⁴¹⁾ 그러나

36) 암마토 정권이 백제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다)-2·3·5·8·10·11·12·13·14·15

37) 백제가 암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자료 중 라)-2·3·4·9·13·15·16·18·22·23

38) 김현구, 앞의 책(1985), 49-51쪽 참조

39) 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校倉書房) 83쪽 참조

40) 『日本書紀通釋』所引의 <天書>에는 ‘六年春三月，百濟請援兵於日本。自是前，新羅高麗共攻百濟任那。連年，故帝遣兵救二國數度。於是今月，詔膳臣巴提便，遣百濟云云’로 欽明

대고구려전이 끝난 직후에 파견된 548년의 축성인부 370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15년 반파와의 분쟁 시에 제공한 船師500인과 554년 관산성 싸움에 즈음해서 제공한 1000명 등 2회뿐이다. 그런데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가 한반도 각 국과 가장 격렬하게 싸운 것이 554년 신라와의 관산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 청군사 내지는 독축사를 전후 5회나 파견하였고,⁴²⁾ 관산성 싸움에서 성명왕이 전사하기도 했다. 그 관산성 싸움 때에 야마토 정권이 제공한 용병이 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숫자는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원군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⁴³⁾ 그렇다면 당시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게 제공한 용병의 규모는 1000명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백제의 입장에서는 당시 고구려, 신라, 임나 등과의 분쟁 시에 국력으로 보아 임나와의 분쟁이 가장 부담이 적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임나의 일국인 伴跛와의 분쟁 시에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 보낸 용병은 物部至至連이 인솔한 船師500명이었다. 따라서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게 제공한 용병의 최소 규모는 500인을 크게 하회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시 야마토 정권과 백제사이에서의 용병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였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시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게 제공한 군사의 규모가 500인에서 1000인을 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백제의 요청에 응해서 보낸 원병이라는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야마토 정권이 백제에 파견한 군은 소위 한반도 남부경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제를 도와주는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天皇 6년 3월에 파견된 贈臣巴堤便이 백제의 청병 요청에 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大伴金村의 아들인 狹手彥이 欽明朝에 백제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건너와서 고구려와 싸운 사실도 《三代實錄》貞觀 3년 8월조,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 和藥使主條, 그리고 《扶桑略記》欽明天皇 13년조 등에 의해서 각각 확인된다. 欽明 12년에 파견된 狹手彥도 원군을 이끌고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본서기》의 전체적인 틀을 논하기 위해서 《일본서기》에 명시된 경우만 취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7회의 원군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 宣化 2년의 10월 狹手彥이 이끈 일군과 欽明 17년 정월에 백제 왕자 혜의 호송병은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2) 欽明紀 13년 5월조, 동 14년조, 동 14년 8월조, 동 15년 정월조, 동 15년 2월조 참조.

43) 김현구, 《앞 책》(1985) 52~81쪽 참조

V. 맷음말

《일본서기》를 제외하고는 6세기의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서기》를 배제하고 6세기의 한·일 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는 상호모순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神功紀 49년(369)조 木羅斤資에 의한 가야 7국 평정과 同 62년(382)조 대가야 구원, 顯宗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繼體紀(507~531)에 보이는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欽明紀 23년(562)조의 신라에게 멸망된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의 출병 등은 《일본서기》에는 암마토 정권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는 기둥들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반대로 백제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준 연구는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들을 인용·해석해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암마토 정권의 한반도남부경영론’이 나왔는가하면, 반대로 ‘삼한·삼국의 열본열도내 분국론’이 나온 것이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6세기 한반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07년에서 562년까지 암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조사해보면 백제와의 교류는 왕복 39회에 이르는 반면 신라·고구려와는 각각 왕복 2회씩에 지나지 않고, 임나와도 왕복 8회에 지나지 않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과는 달리 6세기의 암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서기》가 백제계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백제계 사료를 근거로 했다고 해서 사료에 제시되어 있는 백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근거도 없이 임나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서기》를 가지고 논하는 한 6세기의 암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당시 암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를 보면 백제는 일본에게 전문지식인과 선진문화를 제공하면서 군원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에 암마토 정권은 백제에게 군원을 제공하면서 전문지식인과 선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

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3국이 경쟁적으로 야마토 정권을 자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대외관계에서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문제가 지배자층을 규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마토 정권은 남조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백제를 파트너로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서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게 전문지식인과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야마토 정권은 백제에게 군원을 제공하는 용병관계가 성립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6세기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과의 관계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처럼 임나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백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6세기 한·일 관계의 전제로 제삼국의 임나 경영을 보여주는 神功紀 49년(369)조 木羅斤資에 의한 가야 7국 평정과 同 62(382)년조 대가야 구원, 顯宗紀 3년(487)조에 보이는 紀生磐宿禰의 임나 주둔, 繼體紀(507~531)에 보이는 近江毛野臣의 임나 경영, 그리고 欽明紀 23(562)년조의 신라에게 멸망된 임나를 구원하기 위한 紀男麻呂宿禰의 출병 등도 백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성이 크다. 적어도 《일본서기》의 체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야마토 정권에 의한 것처럼 되어버렸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